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31일 자정에 송구영신예배 드려

'90아시아선교대회, 제1회 김치 세미나, 장애인을 위한 바자회 등 많은 행사들을 통해 사랑과 진리로 섬겨온 90년 한 해를 되돌아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기 위한 90년도 송구영신예배가 31일 자정에 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고, 조신욱 집사(임마누엘찬양대 지휘자)의 지휘로 연합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과 결심"의 기도가 있을 예정이다.

이 예배는 특히 촛불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11시 30분에 소등을 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미리 본당에 입장해야 할 것이다

연말 당회 내년도 사업 및 예산 통과 올해 사업 감사 및 예산 회계 결산 보고도

우리 교회는 지난 26일 당회실에서 12월 정기 당회를 가졌다. 90년도 마지막 당회는 해외 및 지방 출장중인 당회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90년도 사업 감사 보고와 예산 회계 결산 보고가 있었다.

특히 하나님께서 90년도 모든 분야에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 은혜에 온 당회원들이 감사를 드렸으며 또 91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을 믿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회 및 예산안도 넘치도록 허락하실 것을 믿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공산권에 성경을

"공산권에 성경·찬송가 보내기 운동"이 금년 31일까지 연장하여 전개된다

지금까지 이 운동을 위해 성도들은 만2천 여권에 상당하는 헌금을 하였다 금년 연말까지 성도 한 사람이 한 권 이상씩을 감당한다면 2만 권을 무난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 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선교의 오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초부터 "청지기 수련회" 실시 직분별로 일정과 훈련 내용 달라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지기 수련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수련회는 당회와 성경연구원의 주관하에 1월 중에 직분별로 날짜와 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나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살전 1:7)라는 말씀을 주체 성구로 삼고, 91년도 교회 표어와 생활 지침을 중심으로 한 목회 지침을 설명 받고 각 직분의 특성에 맞는 강의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진행	일자	시간	장소	강사	강의
교역자 장로 인수집사	당회	1일(화) 2일(수)	1일 오후 6시 ~ 2일 오전 11시	기도원	이종윤위임목사	1. 91년도 목회 지침 2.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한 기도와 토의
권사 권사회		9일(수) (1부 예배 후)	오후 1:00~2:30 2:40~3:40 3:50~4:10	갈릴리움	이종윤위임목사 윤용규 목사 각 지회장	1. 91년도 목회 지침 2. 권사의 직무 3. 수요 철야기도회 활성화 방안
교사 제1, 2, 3 교육위원회		10일(목)	저녁 7:30~8:10 8:20~9:00 9:10~9:50	본당	이종윤위임목사 박영희 목사 정정숙 교수	1. 91년도 목회 지침 2. 교사의 사명과 책임 3. 예수님의 교육 방법
찬양대원 찬양위원회		12일(토)	저녁 7:00~8:00 8:10~9:10 9:10~9:40	본당	이종윤위임목사 김명업 교수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	1. 91년도 목회 지침 2. 찬양대원 자질
교구일꾼 교구위원회		18일(금)	저녁 7:00~8:00 8:10~9:10 9:10~9:20	본당	이종윤위임목사 최인근 목사 지도목사	1. 91년도 목회 지침 2. 교구일꾼의 임무 3. 업무 지침
여전도회 전도위원회 여전도회		30일(수) (1부 예배 후)	오후 1:30~2:30 2:40~4:40 3:50~4:10	갈릴리움	이종윤위임목사 송태근 목사 각교구지도목사	1. 91년도 목회 지침 2. 전도인의 사명 3. 업무 지침
남전도회 전도위원회 남전도회		30일(수) (2부 예배 후)	저녁 8:30~9:30 9:40~10:40 10:50~11:10	갈릴리움	이종윤위임목사 송태근 목사 각교구지도목사	1. 91년도 목회 지침 2. 전도인의 사명 3. 업무 지침
직원 사무국		11일(금)	오후 1:00~1:30 1:40~2:30 2:40~3:30	갈빈출	이종윤위임목사 각국장	1. 91년도 목회 지침 2. 직원의 근무 자세 3. 본과 토의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존경하는 Y 장로님,
백발이 되신 장로님께 오늘 갑자기 인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이렇게 편을 들었습니다.

부산발 서울행 열차의 승객은 수원을 지나 안양역을 통과하게 되면 차에서 내릴 준비하기에 바쁜 것처럼, 인생 종착역이 우리 앞에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들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도 더욱 의미 있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라 했던가요, 백년을 넘기지 못할 주제에 항상 만년을 꿈꾸면서 죽음이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홀연히 독수리에 채여가는 서리 병아리처럼, 죽음의 급습을 당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게도 보이고 서글픔을 느껴 보기도 한답니다. 인생이란 그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고 더구나 의지할 상대가 못되기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장로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에 얼마인가를 자신에게 물어가면서 지혜를 터득할 시기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철없는 지진아처럼 몸의 크기에 비해 정신 연령이 낮아 교회와 성도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세례받은 지 수년이 되면서 아직도 식기도 못하는 사람,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으면서 언제나 자기만 위하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 한해 동안도 장로님의 말씀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수고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열매가 우리 충현을 통해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비로운 모습으로 부족한 목사의 목회를 힘껏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도운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장로님 가정에도 넘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 30

이 종 윤 목사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 전달



가운데 진행된 이 잔치에서 이종윤 위임목사는 "목표를 정하고 법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잔치에는 많은 교역자, 장로 등이 동석하여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 5시에는 강남구청으로 찾아가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과 경비 300여 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성경 강해

이 종 윤 목사

죽음의 그림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라”

(요11:16)

사람이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신이 조금 잘한 것이나 혹은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서 매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도마를 믿음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과거사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것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어느 일면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요 11:16).

1. 도마의 고백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우월한 고백입니다. 문장의 흐름에서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죽을 바에는 예수님이나 따라가서 죽자.’라고 하는 하나의 체념이요, 포기요, 좌절감을 내포한 우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주석해 놓은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체념적 고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주석에 의하면, 도마야말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불행하고 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는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 즉 고난과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결한다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과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마의 충성스런 열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대가물런지 잠시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하는 도마는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안도하시고 살려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죽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한 걸을 더 나아가 도마의 고백은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죽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런 죽음의 경

에 나섰던 것입니다.

비록 도마는 부활 사건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따랐던 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2. 신앙은 옛사람의 죽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롬 6:1-3)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이요, 그 시간은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재물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

오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 밑에서 죽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원하는 모든 것을 부인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관찰하면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버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옳은 규범이며,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에 아직도 멀리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

병을 살리는 부활을 가져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왔고 그 십자가를 지고가는 순교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가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희락은 상례자 열매입니다. 희락이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언제 오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생깁니다. 원망과 시비가 다 사라진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 옵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나 중생의 체험을 가진 사람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자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진리를 권고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진도입니다. 도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디두모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의 다른 한 쪽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기가 믿는 확신을 전해 주고 싶어 주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야 산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원망과 서비 대신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피로운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자가 참 그리스도인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 그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입니다. 어느 누가 죽기를 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종교가 거룩고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신앙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짝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계속 살아 있는 한 그 사람은 기독교에 입문도 하지 못하며, 세례받을 자격도 없다고 정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려면 도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기는 쉽고 들으면 할 것 같지만 에 일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는 사람은 도마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해서 자기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향하여, 내게만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뒤를 보지 않고 오직 “뜻대로 향하여”(렐 3:13, 14)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나간 일을 원망해서도 안되고 현재를 원망해서도 안됩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한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잘해, 자신이 표준에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남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죽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패자의 원리요 가장 비겁한 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가장 중요한 생

전도회 91년도 회장단 선출

우리 교회는 91년도에 각 전도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다.

●지 회

●협의회

남 전 도 회										여 전 도 회							
모 세	임 봉	남 바	울 양	종 섭	한 나	김 증	복 에스더	김 춘	자								
베드로	강 봉	수 요	한 박	찬 섭	루디아	김 정	희 마리아	장 남	희								

지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남 전 도 회	모 세	회 장	김용대	김승일	홍종락	박구순	임봉남	이영희	이동수	주열호	오석부	서동석	정재복	김인관	오인근	주원홍	김택선	강 협
		부회장	여운희	이남호		장일준		설창경	김광삼	서길원	이춘만	남은균	최만수	한경선	마수전	윤택상	김달현	김상빈
	바 울	회 장	노영환	박정태	이상용	고병국	이병옥	이명희	조종환	장봉순	안병호	양종섭	채수경	이영열	전용해	박근엽		안성영
		부회장	김보원	민조식	김희선	박상준	권 철	한호철		박종현	최지윤		최명환		안노수	이성섭	김태기	박원규
여 전 도 회	베드로	회 장	이부성	황영일	성준경	장승규	강봉수	김기철	신부근	윤우선		김영수	이인영	원용철	윤봉준	정정주	김영달	최종시
		부회장	이병영	손 철	채현식	임복섭	조홍진	염광호	고종복	김광수		정태두	김영은	김영근	신종명	장철환	김형선	오승균
	요 한	회 장	박병선	신광철	권백용	최형열	박성명	정선현	김정필		이광국	김용대	박동업	김광호	이홍우	박찬섭	이상해	정창원
		부회장	김승기	지정복	서태순	구재완	아영식	이성섭	김성태		강태주	이송득	백남제		정필걸	장경수	백운홍	황인주
여 전 도 회	한 나	회 장	박옥식	박순옥	이정숙	김용순	김정은	이명자	백인숙	김후전	오채련	박진엽	심귀례	김종복	안윤진	김동호	장예희	정봉조
		부회장	전인숙	김옥례	이옥현	신군자	김순복	한경옥	김필녀				최석주	신명희	윤순전	이남수	유정수	김명숙
	에스더	회 장	양선자	이승자	반정현	김영순	최미정	이규숙	이도영	신일순	김연수	김석윤	우순성	권영애	박윤석	김준지	서인희	김 순
		부회장	김옥순	염숙현	장정숙	임경자	김운심	박영여		박인애	전종순	이미재	이지영	심영순	조복덕	윤정미	주옥환	김옥남
여 전 도 회	루디아	회 장	이수자	금호순	최현숙	심효숙	이경효	이남숙	양승남	유성자	방소애	김순오	강순자	손순애	최윤정	태명자	박정숙	최정희
		부회장	최선자	조남숙	김정희	김은숙	라영실	전경자	김순실	이영옥	임선영		박종화	김정희	김성녀	서종남	황광자	오정화
	마리아	회 장	송정순	이상옥	김영혜	오영숙	정경희	이소규	이영수	이혜영	이봉선		한명순	이현순	김진숙	한애현	이경혜	김상옥
		부회장	장순태	이영숙	이숙희	이정현	차경숙	김무영	손유비	김경희	강미숙		신영희	장선옥	모미애	전순순	김옥선	김옥순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 준비위원회 구성

우리 교회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미래 지도자를 위한 바른 대학 생활 안내”를 위한 준비가 하나하나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CCC회원들과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은 계속하여 이 대회를 알리는 전단지들을 서울 경인 지역

에 있는 40개 대학의 학생들과 합격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활발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교회는 CCC와 계속 접촉하면서 대회 조직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 대회가 대학가의 복음화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 회 장 : 이종윤, 이준곤 • 지 도 : 김해규, 이상규 • 협력부서 : 당회서기, 기획조정실
• 준비위원장 : 이 훈, 심성재 • 위 원 : 박용삼, 조인제, 정홍식

분과별	제 1분과	제 2분과	제 3분과	제 4분과
	지도: 김성운-안효선	지도: 최인근-김홍식	지도: 정기봉-김동환	지도: 송태근-이정호
담당 분야	기 도 교 육	재 정 안 내	심 외 의 전	진 행
분과 위원장	오대희	김광선	박철호	최정현
협력 부서	교육위원회	재정 및 예배위원회	사 부 국	전양위원회
위 원	안세현	윤석산	유순원	이인선
	정재영	유광현	김선희	조남숙
	박철순	김현수	김승태	이진원
협력 조직	책 임	전일승	조인성	강수정
		김성호	조성희	주수미
	위 원	강은진	여하늘	마미경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김 상 규 집사

어느덧 또 한 해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올해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뭔가 한 일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막상 뚜렷이 꼽아낼 것이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또 덩그러니 살아온 제 자신의 못난 모습만이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벌써 몇 해를 이렇게 똑같은 후회 속에 한 해를 지나보내곤 했었는지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났으면 꼬박꼬박 하나님께 약속하며 결심도 해보지만 결과는 늘 부족이요 불만족한 점 뿐입니다.

저의 약속이 애당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분수 없

이 해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둘 중 하나인 까닭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정성으로 기도하며 애쓰는 자녀에게 항상 넉넉히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정성과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곧 저의 실패의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마귀를 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싸워 이겨야 할 상대는 우리를 자꾸 영동한 비(非) 기도적인 곳으로 끌고가려는 마귀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합리화에 모두 천재입니다. 마귀는 이점을 적극 이용하여 우리로 적당한 구실을 찾아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기 멋대로 안심하고 자신의 영혼에게 휴식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슬쩍 외면하고서 말입니다. 이권 주님을 아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 아닌 거듭된 파렴치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를 그냥 용납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아니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시기에 애쓰실까를 생각하니 귀구멍이라도 들에가고픈 심정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저의 알파

청년층 부흥 위해 교회학교 편제 변경

우리 교회는 청년들의 신앙적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대학부인 안정과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장전도교육부를 청년1부로, 현재의 청년1부와 청년2부를 청년2부와 청년3부로

부서명	연령	비고
대학부	20~23	1. 대학 재학생 2. 23세 이상의 대학생이 청년부로 이적을 원할 때는 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년부원으로 피선될 수 없음
청년 1부	20~23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장인과 재수생 및 현 직장전도 교육부 회원 중 연령에 해당하는 자 중심
청년 2부	24~26	당초 청년 1부
청년 3부	27~29	당초 청년 2부

청년2부 성탄절에 특별 노방전도

청년2부는 지난 성탄절 명동 교회 소개 등 기존의 소규모의 전에서 특별 전도를 실시했다. 이 날은 전자 오르간, 앰프를 포함한 다수의 음악 장비를 동원하고, 찬양과 개인 전도, 그리고

한 피를 쓰고 그분의 큰 기대를 저버린 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나 자신의 한 쪽에서는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반발하는 데도 자신을 속여가며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것처럼 애써 믿어 왔던 것입니다.

“주여 스스로 조심하여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열게 하소서”(눅 21:34 ; 엡 4:23~24)

“항상 게도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전하지 않는 참 할례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골 4:2 ; 빌 3:3).

요즈음 갑자기 주님 재림이 2년 남았다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하는 이야기가 무성해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을 맞을 준비가 완전하지 못하여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오는 1991년에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번에는 기필코 후회스러운 연말을 맞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여 봅니다.

다음호 세기들은 윤명식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강좌 모범자 선정

성경연구원은 충현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무오한 삶인 안에서인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 90년 첫주부터 주보에 게재해오던 “성경통신강좌”에 약 3천여 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교구마다 전도사들이 이 강좌의 성적 관리를 해왔으며 지난 9월 채점을 마감하였다. 그 결과 약 3백여 명이 47번 이상

지를 제출한 모범자로 알려졌다. 성경연구원은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간에 성적이 가장 좋은 왕진숙 집사(제13교구)를 표창하고 모범자들에게는 교구를 통하여 상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내년도에는 성경읽기표와 진도를 같이 하여 성경통신강좌를 실시할 예정인데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철야기도회 “금요기도회”로

시간도 저녁 9시로

교구위원회는 금요일마다 각 교구가 주관이 되어 모이는 철야기도회의 명칭을 금요기도회로 변경하고 그 시간도 앞당기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밤 11시에 열리던 이 기도회가 91년도부터는 저녁 9시에 갈릴리 홀에서 열리게 된다.

인사이동

●스테반회 지도

신평근 목사

●찬양감독

이관섭 집사(현재 아멘찬양대 지휘자)

■ 성경통신강좌 참가 소감

문제 하나하나 풀며 진리 깨달아

왕진숙 집사(제13교구)

“성경통신강좌”가 주보에 실리기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일년이 되어 오십 회에 이르게 됨을 생각하며 그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문제가 너무 단면적이라느니, 어렵다느니, 한 면에 치중되었다느니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통신강좌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 동안 성경통신강좌의 문제에 답할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호소하였고, 그 시간만은 정성껏 세밀하게 실수 없이 답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핵심을 잘못 이해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풀어나가는 데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교회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식, 이 모든 지식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홀히보고 지나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은 일부터 소홀

히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며, 나 자신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도 터득하고 질그릇 같은 내 속에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보배를 가진 성도의 생활을 하기를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헌신도, 봉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일년이 다 가도록 성경 한 권 못 읽을 성도들도 성경통신강좌를 통하여 다독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접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감사한데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랑에 두렵게 다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91년도에는 더 열심히 최선의 노력으로 순종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약속하면서 더 잘하라는 기회로 알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나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수고로운 봉사와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과 가난 속에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모든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제공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롬 8:25).

2.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생활지침은 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②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③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곧 사명입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을 보여 주며 연약하고 시험 당한 교회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1.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 보고 소문이 퍼져나간 지방도 살펴봅시다.

2.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장점이 주변 교회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었는지 하나 하나 살펴봅시다.

3.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와 생활 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역할을 토의해 봅시다.

교회학교 각 부서 사용 장소 변경

91년도부터 교회학교가 새롭게 편제됨에 따라서 각 부서의 예배실, 분반공부실 등이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예배실	분반공부실	찬양연습실	교사실	주일오후예배실 또는 면려회실	비고
영아부	아멘홀	아멘홀	아멘홀	아멘홀		
유치부	소 205	소 205, (208), (209)	소 208	소 205		
초등1부	소 212	소 212, 201, 202	소 305	소 304	소 304	예배
초등2부	소 314	소 314, 301, 302, 305, 308, (311)	소 301	소 311	소 308	9:00~9:45
초등3부	소 307	소 307, 312, (310), 401, 411, 412	소 309	소 310	소 305	분반공부
초등4부	소 407	소 407, (410), 514	소 409	소 410	소 409	9:45~10:15
초등5부	소 414	소 414, 405, 408, 409, (403), 602	소 402	소 403	소 401	
초등6부	소 507	소 507, 508, 509, 512, 501, 701, 702, (503)	소 502	소 503	소 501	
중등1부	소 307	소 307, 314, (303), 212	소 309	소 303	소 405	예배
중등2부	소 407	소 407, 414, 401, 405, 408	소 402	소 404	소 512	10:30~11:15
중등3부	소 507	소 507, 501, 508, 509, 512, 602, (504)	소 502	소 504	소 508	분반공부
고등부	갈릴리홀	갈릴리홀, 메추라기홀, 본당지하분반공부실		본 404		11:15~11:45
대학부	갈릴리홀(토)				소 509(주일)	
청년1부	소 514	소 514, 702	소 511	소 510		
청년2부	소 602	소 507, 602, 701		소 601		
청년3부	소 514	소 514		소 505		
장년1부	소 407	소 407, 408(아동실)		소 412		
장년2부	소 414	소 414		소 411		
장년3부	소 314	소 314		소 312		
장년4부	소 307	소 307		소 309		
소망부	갈릴리홀	갈릴리홀		본 207		
새가정부	소 201, 202	소 201, 202		소 202		
새가족부	베다니홀	베다니홀		본 203		
사랑부	소 107	소 107		소 105		
예배다부	소 109	소 109		소 115		
탁아부	베들레헬홀	베들레헬홀		본 113		
영어주교	베다니홀	선 401, 402, 405, 406		본 108		
일어주교	선 501	선 501				

● 스테반회 본당 306호(현 중등부 교사실)

* 단, 성경연구원 개강 후에 소석관 301호는 성경연구원 전용 강의실로 사용됨



제1과 모범적인 교회

성경: 살전 1:1~10

요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 1:7)

찬송: 245, 246

1.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졌으며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알아 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교회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교회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동시에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1)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외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약 2:17).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비대한 믿음과 그 열매가 계속 맺히는 교회였습니다.

2)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의 하